

# 87년을 보내면서 육계산업을 돌아본다



87년은 육계산업구조에 새로운  
획을 긋는 중요한 한해였다.

사회: 81년부터 87년까지의 육계가격 패턴은 그림과 같은 곡선을 그리면서 지나왔습니다. 금년의 특징이라면 과거 3개월을 주기로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곡선이 바뀐것입니다. 금년에는 등락폭이 굉장히 넓어지는 현상을 나타냈습니다. 결국 육계값이 금년 상반기동안에 생산비를 웃도는 안정세가 장기간 유지되므로써 입추를 과열케하는 주요인이 됐으며 급기야 병아리가격이 400원선을 웃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 부화장에서조차 종계를 도태하지 못하게 만들어 생산과잉이 되었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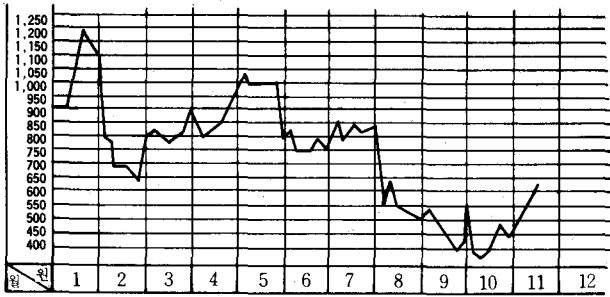
금년의 하반기 경기는 하락폭이 대단히 심했는데 그 원인을 생산자 입장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육규모 5천만수를 넘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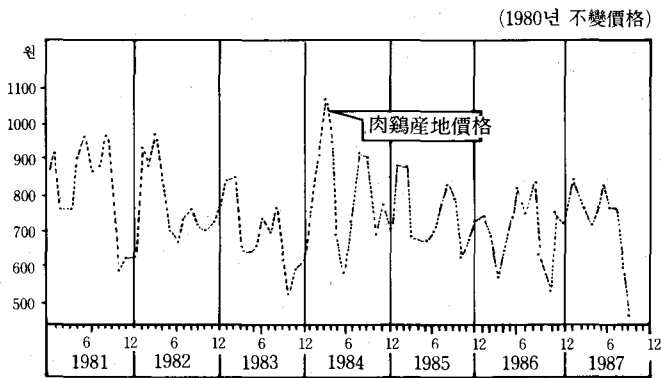
장민기: 86년 10월24일을 기준으로 볼때 그 이전 경기는 상당히 어려웠고 추석때 특히 폭락하여 생산비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는 육계가격이 생산비선에 도달이 되어 87년 7월까지 유지했던 점으로 경기는 괜찮았습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86년 11월부터 87년7월까지 9개월간 생산비선에 도달했던 기간이었습니다. 이때 병아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자연히 생산시설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숫자상으로 볼때 86년에는 사육시설이 총4천만수 안팎이었던 것이 87년 6월에 와서는 총5천만수 규모가 되어 25%의 증가를 얻었습니다. 사실 닭을 더 키우고 싶어도 병아리가 없어 키우지 못하는 현상이 속출했던 것입니다.

육계가격이 7월말에 가서 급락하는데도 입추열기가 식지 않아 계속 입추를 시킨 결과 지금과 같은 불황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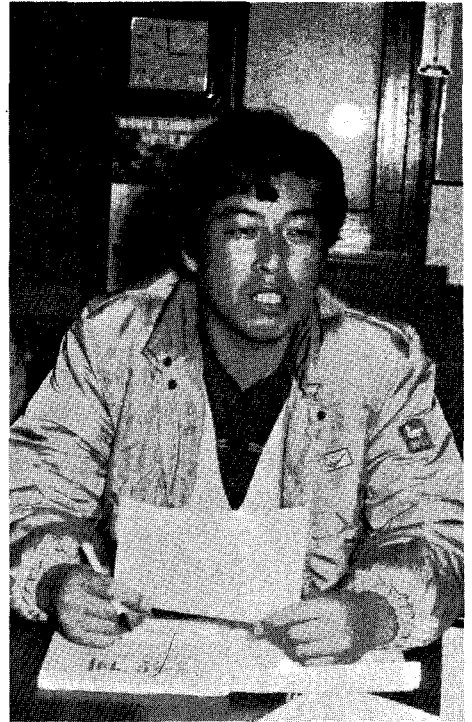
- 일시: 1987년11월27일(금) 오전11시
- 장소: 본회회의실
- 참석자: 김풍림(성림농장대표, 본회천안육계분회장)  
장민기(버들농원대표, 본회부회장겸 육계분과 위원장)  
최성복(육계안정협의회 회장)
- 사회: 노영한(본지 편집국장)
- 정리: 김용화(본지 기자)



(87년도 생계 가격 변동표)



(1980년 不變價格)



김 봉림 사장

왔다고 분석이 됩니다.

현재도 부화장에서 종계확보상태로 보아서는 국내에서 필요한 병아리 생산은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재의 입식열을 보면 어려움이 내년 2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내년 2월까지 육계불황 지속될듯

사회: 과거에는 1년에 2번정도 육계값이 오르고 내리는 현상을 보였는데 금년에는 전반기에 올라가고 후반기에 내려가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무제한 사료공급도 불황부채질

최성복: 옛날에는 서울시에서 도계법파동을 통하여 조절을 했기 때문에 기복이 짧았는데 그때만 해도 사료

물량을 마음 놓고 구입하지 못하던 때라 불황이 단기간에 해결이되었습니다. 육계사업해서 손해본 것은 1~2개월 후면 만화를 하곤 했는데 요즘은 양상이 아주 변해버렸습니다. 금년처럼 4~5개월씩 장기화되는 현상은 17년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첫째: 생산자규모가 매년 5%씩 증가해오다가 금년에는 약30%정도 증가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서산·당진을 보면 86년 봄까지만해도 50~60만수 양계규모였던 것이 금년 6월에는 300만수라는 엄청난 증가추세를 보였고 현재도 200만수정도를 기르고 있습니다.

둘째: 육계생산자를 2가지로 분류하는데 ①5~6만수 규모의 대군업자, ②농가부업 소군업자입니다. 대군업자들이 대규모 입추에 들어가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대군업자들은 어음 활용등 결재사정이 좋기 때문에 부업형태의 소군업자들보다 입추사정이 좋아 병아리를 마음대로 넣을 수 있습니다만 소군업자들은 농지를 계사로 전향해 병아리도 넣지 못하고 때가 되어도 농사



장민기 씨

를 지을 수가 없어 문제입니다. 이것을 시정하고 책임져 주는 부서가 생겨서 해결해 주기전에는 불황이 장기간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사회: 농기부업형태를 보호하는 것이 협동조합체제라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것이 발달하지 못하여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육계소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금년에 소비량은 크게 증가 했다.

최성복: 금년 육계소비에 대해서 상당한 염려를 했는데 약15%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최근 10년간 쇠고기는 4.1%가 감소를 한 반면 닭고기는 48%가 신장됐다고 하더군요.

우리도 좀더 홍보를 하면 기대이상의 효과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금년 3~4월에 생산물량이 20%증가를 했는데도 무난하게 가격형성이 된 것으로 보아 평상시에 홍보를 하지 않아도 약 15%정도의 소비는 증가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입니다.

현재도 김장철이긴 하지만 그런대로 소비는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성수기에 장마로 소비 감소

김풍림: 금년 전반기에는 닭고기 소비신장이 15%증가하다가 후반기 들어 우기가 겹치면서 성수기 때 소비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요즈음 경운기나 차에 신고 가두판매도 하지만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한 소비 증가는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돼지고기 가격이 폭락하여 더욱 소비에 부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방에서의 소비가 줄었습니다.

### 돼지고기값 폭락으로 육계에 큰 타격

사회: 과거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닭고기가 신장될 때 너겟, 햄버거, 런천미트, 베이비후드, 핫도그, 햄버거패티가 개발되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1인당 소비량이 3.1kg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이 영양샌드나 튀김집이 등장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높은 소비가 되려면 우선 신제품개발을 통한 상품화입니다. 지금은 신상품이 소비패턴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불황해결이 생산자가 능동적으로 생산조절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현재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초생추 출하조사 부활해야

장민기: 3~4년전 양계협회에 통계조사요원이 현장을 다니면서 직접 부화장의 상황을 파악 통계자료를 만들때 이 자료를 가지고 전망을 할 때는 점을 잘친다고 쪽집개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같이 사료량으로 통계를 산출하니깐 우선 물량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분석하여 현지육계 농가에 도달할 때 쯤이면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아 당연히 실효성이 적어 예측이 아닌 결과치를 분석하는 셈입니다. 통계자료면에서 전과 같이 적어도 초생

추 출하전 20여일 전에 상황이 파악되면 생산자들이 입 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료비 면에서 육계생산비중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세계를 정부차원에서 해결해 주면 많은 생산비 절감을 시킬 수 있습니다. 지난 심포지엄에서도 30%정 도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발표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생산비가 20%가 낮아져 현재 800원이라면 650원 선까지 싸게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나서 생산자 는 질병 기타 소모성요인들을 잘관리해서 효율적인 경 영을 해나가 국제경쟁력을 높여가야 합니다.

사회: 요즈음 부화장의 입장이 옛날과는 달라져 대형 화되고서부터 사료비소요만도 월2-3억이 됩니다. 여기 에 인건비 및 부대경비를 포함한다면 병아리를 많이 팔 지 않고는 어려워 졌습니다.

이렇게 볼때 병아리 생산을 줄여주기앞서 농장에서 입식을 자제해야 되겠습니다.

### 부화장도 생산능장도 조절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김풍림: 생산자가 조절을 할 수만 있다면 구태여 싫 은 소리를 할 필요가 없겠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육계농가가 규모가 대형화하여 유지관리비 때문에도 설 수가 없는 형태입니다. 현재 전기사료가 월 5만톤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적정생산량이 2만톤으로 보고 있 습니다. 계사의 60%가 가동을 중지해야 한다는 결론인



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이고 부작용도 많을 겁니 다. 이것도 불황을 지속시키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 합니다.

### 육계업자 영세하고 숫자 많아 생산조정 능력 없어

최성복: 병아리를 조절하는 방법에는 사료공장에서 외상판매를 근절하는 것과, 부화장의 적정수준 준수, 생 산자가 자제하는 것이 있는데 농가부업상 어렵고 숫자 도 많고 지역이 워낙 넓어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열 화가 됐든 조합체제가 됐건 어쨌든 농민이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체제가 형성될때까지 당국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현재 대한 양계협회에서 가격안정협의회를 구상중에 있다고 하니가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사회: 어떤 형태로건 산업은 안정적으로 발전을 해야 할 것이고 육계산업도 지금과 같은 형태를 벗어나야 하 리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음은 발전방향에 대해 말씀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육계산업도 생산성을 높이고 인력절감을 위해 기계화 서둘러야

김풍림: 우리의 현실은 이제 수입개방을 외면할 수만은 없는 처지입니다. 변화에 맞는 국내변혁이 필요한데 부화장의 경우는 기계화시설을 현대화 시켰잖습니까. 그러나 육계산업은 아직 인건비상 필요성이 그다지 높지 않아서인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추세로 보아서 90년대에는 브로일러 산업도 자동화시설이 필요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면 계열화 사업이 이루어져 산업자체가 안정되어야 하는데 이 변혁을 어떻게 원활히 해결하느냐입니다. 계열화 추진사업에는 농림수산부가 관여를 해서 대한양계협회가 주동이 되고 각계열주체들이 참여해야 하는데 생산자들은 단체별로(분회, 지부), 사료사업, 등이 참여해야 하고 식품업체는 관여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유통상의 문제로 양계산물은 소비단계에서 공판장이 없어 가격고시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산량과 소비량에 따라 가격이 조절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혁신적인 소비창출에 대단히 애로가 많습니다.

사회: 유통이라는 것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워서 해결이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유통구조로는 도저히 개선이 어렵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축산물도 수퍼를 통하여 대량유통 대량소비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이 단계를 위해서는 현재의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당장 내년부터는 고가사료시대도 접어들게 될 조짐이 있어 업계는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금년은 육계산업의 구조자체의 바뀌어져 옛날과 같은 육계산업이 아님을 알려주는 획기적인 획을 긋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양상의 육계산업이 시작되고 있음을 육계업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되리라고 믿어집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양계**

중추·대추

위탁사육 및 주문사육환영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중추·대추

만을 전문으로 육성하고 있는 저희 농원에서는 끊임없는 연구, 노력으로 귀하의 수익증대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육성계 전문사육장

삼 정 농 원



농장 : 경기도 광주군 오폐면 양벌리 612번지  
전화 : (0347) 62-4339  
대표자 : 이 오 형